

퀀트가 제시하는 **잘** 나갈 **알짜** 전략

본격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자료

[Quant / Strategy]
이상민 Quant Analyst
smlee@barofn.com
+822-6099-8665

대격변 (Cataclysm)

잔인한 시장이다. 10월 26일 현재 기준, KOSPI는 2018년 1월말 증가(2566.46pt) 대비 -21.01% 하락한 2027.15pt를 기록하였다. 이는 2229.09pt를 고점으로 하여 1644.11pt까지 하락했던(-26.24%) 2011년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반등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반등이 세계 날 종목을 찾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2001년 이후, KOSPI의 4주 수익률이 -10% 미만이었던 구간에서 어떤 스타일/업종이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고변동성(Big Vol) 종목의 우위

조사결과, 스타일에서는 고변동성 종목과 경기주도주의 우위가 관찰되었다. 섹터에서는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의 우위가 관찰되었다. 당사는 이를 기술적 '되돌림'으로 판단한다. 변동성이 컸던 종목일수록 어떤 의미에서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 종목일테고, 조정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 비중이 상승하는 종목 또는 하락이 과대하였던 종목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고변동성 종목, 그리고 산업재/에너지 & 고변동의 교집합

이에 당사는 두 가지 리스트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는 산업재 및 에너지 섹터 중 변동성이 높은 종목의 리스트이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고변동성 종목이다. 리스트는 아래와 같으며, 시가총액 5천억 이상, 60일 거래대금 20억 이상 종목 중 2019년까지 감익이 되지 않는 종목 중에서 6개월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뽑아보았다. 단, 단순 고변동 종목 리스트에서는 대북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은 제거하였다.

산업재/에너지 섹터 내 고변동성 종목과 단순 고변동성 종목 스크리닝

종목명 (변동성 순 정렬)	
산업재/에너지 & 고변동성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현대건설, 현대일렉트릭, 한국항공우주, 삼화콘덴서, 효성, 태영건설, 현대건설기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씨에스윈드, LIG넥스원, 대우건설, LS산전, OCI, 한진칼, 포스코대우, 두산인프라코어, 진에어
고변동성	동성제약, 녹십자셀, 아미코젠, 현대일렉트릭, 삼화콘덴서, 신세계인터내셔널, 애경산업, 효성, JYP Ent., 포스코켄텍,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천당제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크리스탈, 신세계, 한세실업, 한전기술, 화승엔터프라이즈, 더존비즈온, 씨에스윈드,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휠라코리아, 호텔신라, 일진머티리얼즈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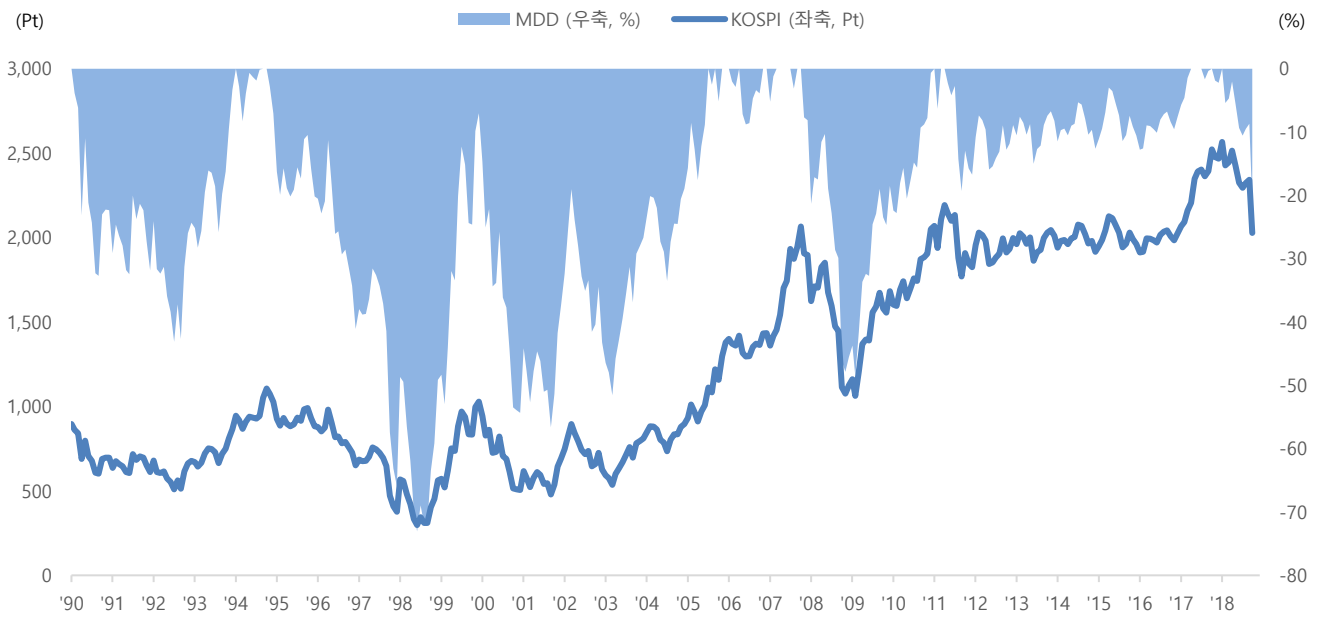
대격변(Cataclysm)	3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4
일관되게 나타나는 고변동성(Big Vol) 종목의 우위	5
섹터에서는 에너지와 산업재가 괜찮았다	6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반등도 강할까?	7
외국인 비중이 올라가는 종목 또한 별 의미가 없었다	8
교집합을 찾아보자 : 산업재 및 에너지, 고변동성	9
섹터에 구매받지 않겠다면	10

대격변 (Cataclysm)

잔인한 시장이다. 10 월 26 일 현재 기준, KOSPI 는 2018 년 1 월말 종가 (2566.46pt) 대비 -21.01% 하락한 2027.15pt 를 기록하였다. 이는 2229.09Pt 를 고점으로 하여 1644.11Pt 까지 하락했던 (-26.24%) 2011 년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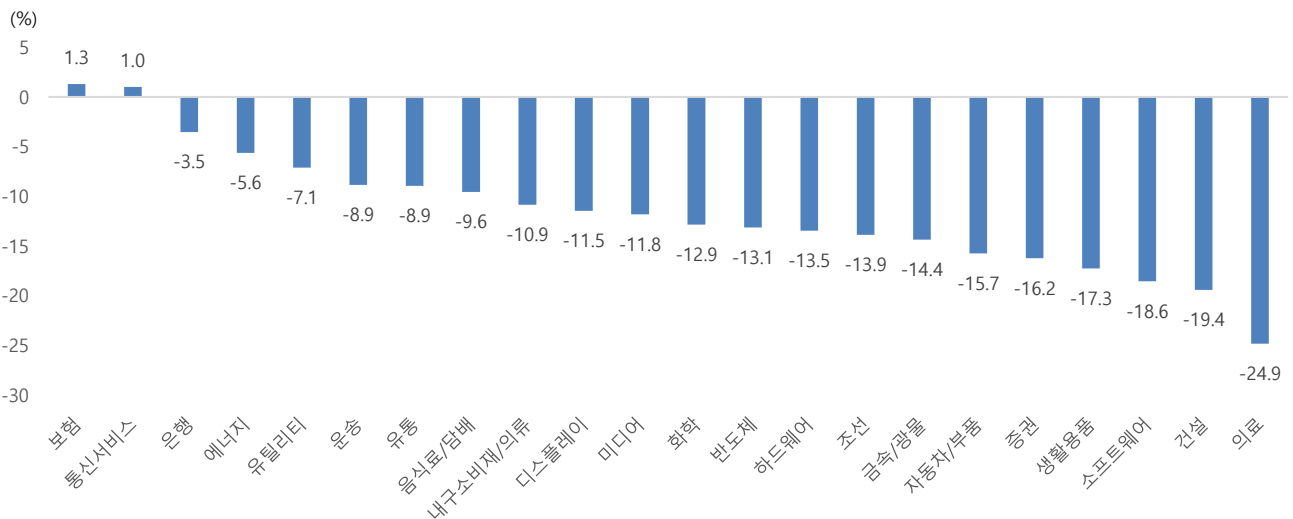
가치주는 그나마 상황이 나왔다. 최근 1 달간 보험, 통신, 은행, 에너지, 유틸리티와 같은 저 PBR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선방하였다. 반면 의료, 소프트웨어, 생활용품과 같은 섹터들은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

Exhibit 1. KOSPI 지수와 Maximum Draw Down (1990.1.1 ~ 현재, 월간 증가 기준)



Source: Fnguide,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2. 업종별 1 개월 수익률 (%)



Source: Fnguide, Baro Research Center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덜 흔들릴 종목을 찾아야겠지만, 반등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향후 반등이 세계 날 종목을 찾는 것이 과제일 수 있다. 2001 년 이후, KOSPI 의 4 주 수익률이 -10% 미만이었다는 구간에서 어떤 스타일/업종이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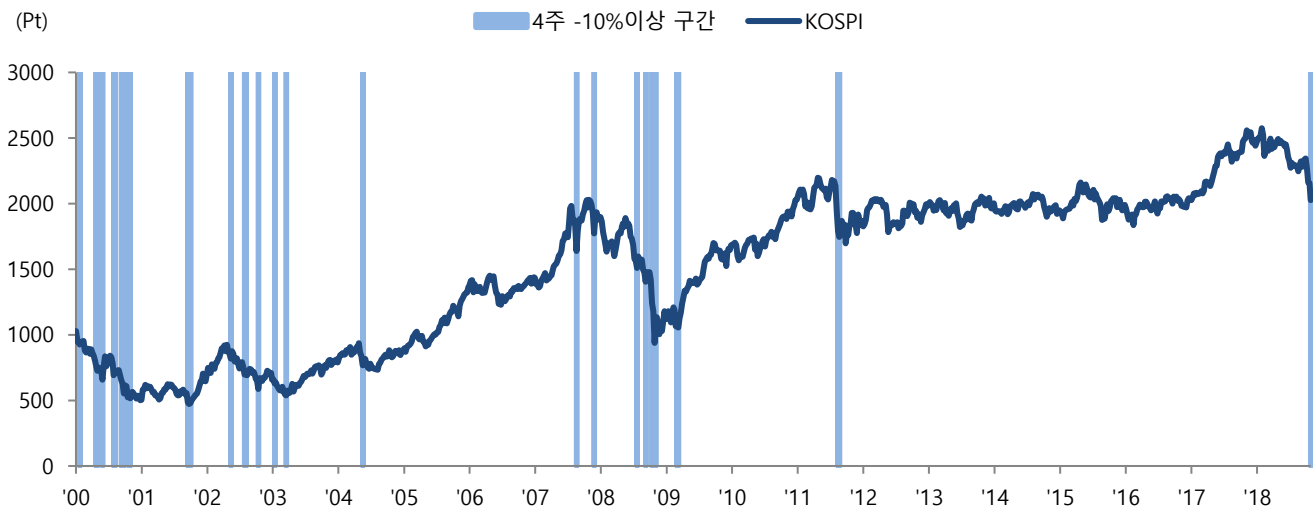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2000 년 부터의 시계열에서 현재까지, 980 주 중 최근 4 주 수익률이 -10% 미만이었다는 경우는 34 번이다. (3.47%) 최근의 공백은 굉장히 길었다. 2011 년 8 월 이후, 4 주 수익률이 -10% 미만이었다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사에 사용한 스타일의 정의는 MKF500 Style Index 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스타일은 아래와 같다.

순수가치, 순수성장, 대형주, 중소형주, 고배당, 수출주, 모멘텀, 경기주도주, 경기방어주, Low Vol, Big Vol, 배당성장

해당 스타일 분류를 사용하여, 4 주 수익률이 -10% 미만일 경우 향후 1~4 주 초과수익률 및 승률을 조사해 보았다. 승률의 기준은 지수 대비 Outperform 한 경우를 측정하였다. 물론 표본이 다소 적다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hibit 3. 4 주 수익률이 -10% 이상 하락한 구간은?



Source:KRX, Baro Research Center

일관되게 나타나는 고변동성(Big Vol) 종목의 우위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Exhibit 4 와 Exhibit 5 에 요약하였다. Big Vol Index 와 경기주도주 Index 의 우위가 관찰되었다. Exhibit 4 에는 스타일별 초과수익률을 정리하였다. Big Vol Index 의 초과수익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을 따르는 것은 경기주도주, 모멘텀과 순수성장 지수였다.

Big Vol 이라 함은 결국 고변동성 종목이다. 높은 베타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사는 이를 기술적 '되돌림' 으로 판단한다. 변동성이 컸던 종목일수록 최근 어떤 의미로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일테고, 조정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이에 낙폭 과대를 눈여겨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노리고 매수하는 Mean-Reverse 전략을 구사하였을테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컸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의외로 경기방어주나 가치주, 저변동성(Low Vol) 종목들은 비교적 부진하였는데, 이는 되돌림이 발생할 시 낮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기술적 반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hibit 4. -10% 조정 이후 스타일별 초과수익률 추이 (2001. 1. 1 ~)

	순수가치	순수성장	대형주	중소형주	고배당	배당성장
1주 뒤	-0.24%	0.36%	-0.02%	0.08%	-0.05%	0.00%
2주 뒤	-0.57%	0.37%	0.08%	-0.50%	-0.86%	-0.23%
3주 뒤	-0.31%	0.49%	0.05%	-0.25%	-0.56%	0.38%
4주 뒤	0.34%	0.63%	0.03%	0.00%	0.24%	0.68%

	수출주	모멘텀	경기주도주	경기방어주	Low Vol	Big Vol
1주 뒤	0.33%	0.64%	1.60%	-0.97%	-1.19%	2.73%
2주 뒤	0.31%	0.47%	2.32%	-1.36%	-1.65%	2.85%
3주 뒤	0.46%	0.21%	2.14%	-0.94%	-1.73%	2.71%
4주 뒤	0.40%	-0.14%	2.09%	-1.13%	-1.79%	2.33%

Source:Fnguide,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5. -10% 조정 이후 스타일별 승률(Hit Ratio, 2001. 1. 1 ~)

	순수가치	순수성장	대형주	중소형주	고배당	배당성장
1주 뒤	64.71%	68.18%	50.00%	50.00%	54.55%	50.00%
2주 뒤	61.76%	45.45%	54.55%	45.45%	45.45%	54.55%
3주 뒤	67.65%	50.00%	59.09%	40.91%	31.82%	50.00%
4주 뒤	67.65%	45.45%	59.09%	40.91%	50.00%	50.00%

	수출주	모멘텀	경기주도주	경기방어주	Low Vol	Big Vol
1주 뒤	59.09%	63.64%	40.91%	31.82%	45.45%	72.73%
2주 뒤	45.45%	68.18%	36.36%	22.73%	40.91%	72.73%
3주 뒤	50.00%	68.18%	54.55%	31.82%	40.91%	77.27%
4주 뒤	36.36%	59.09%	68.18%	36.36%	59.09%	72.73%

Source:Fnguide, Baro Research Center

섹터에서는 에너지와 산업재가 괜찮았다

해당 분석을 섹터 레벨에서도 수행해 보았다. 섹터 분류는 Fnguide 업종분류를 사용하였다. Exhibit 6 과 Exhibit 7 에 결과를 요약하였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산업재 섹터가 근소하게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 필수소비재 등은 다소 열위를 보여주는 모습이 관찰된다. 다만 에너지 섹터의 경우 약간의 우위는 있는듯 하나, 에너지 섹터를 구성하는 종목이 소수인 데에다, Hit Ratio 또한 일관되게 높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무리로 판단한다.

산업재의 경우 고 변동성(하이 베타) 종목이 많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보고 있다. 2003 ~ 2007 년과 같은 산업재가 랠리를 보인 시기 뿐만 아니라, 2008 ~ 2009 년에도 어느 정도 의미있는 반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다소 표본이 부족하기는 하나 현재 시장에서는 스타일 전략 측면에서는 고 변동성 및 경기주도주 스타일이, 섹터 레벨에서는 산업재 또는 에너지 섹터가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둘을 결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향후 반등을 노린다면, 산업재와 에너지 섹터 중 고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hibit 6. -10% 조정 이후 섹터별 초과수익률 추이 (2001. 1. 1. ~)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의료	금융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1주 뒤	0.94%	-0.09%	1.15%	-0.23%	-0.80%	-1.32%	0.06%	-0.38%	-0.65%	-0.86%
2주 뒤	1.02%	1.10%	1.22%	-0.40%	-1.54%	-1.51%	-0.85%	-0.22%	-1.17%	-0.64%
3주 뒤	2.34%	0.99%	1.33%	-0.30%	-1.45%	-1.25%	-1.35%	-0.16%	-0.67%	-0.21%
4주 뒤	2.05%	0.59%	1.27%	0.39%	-1.66%	-0.63%	-0.80%	-0.13%	-0.53%	-0.39%

Source:Fnguide,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7. -10% 조정 이후 섹터별 승률 (Hit Ratio, 2001. 1. 1. ~)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의료	금융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1주 뒤	50.00%	36.36%	63.64%	36.36%	36.36%	36.36%	54.55%	45.45%	40.91%	45.45%
2주 뒤	54.55%	59.09%	59.09%	36.36%	22.73%	31.82%	45.45%	54.55%	50.00%	54.55%
3주 뒤	68.18%	59.09%	54.55%	45.45%	36.36%	27.27%	40.91%	45.45%	45.45%	50.00%
4주 뒤	63.64%	45.45%	59.09%	50.00%	45.45%	50.00%	36.36%	45.45%	59.09%	50.00%

Source:Fnguide, Baro Research Center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반등도 강할까?

또 하나의 질문이다.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반등도 강할까? KOSPI 200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해 보았다. 역시 동일하게 2001년 1월 이후를 조사기간으로 잡았다. 조사방법은 이렇다. 하락률 Top 20%, 즉 하락률이 가장 높은 종목과 하락률 Bottom 20%, 즉 하락률이 가장 낮은 종목군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Exhibit 8에 요약되어 있다.

역시나 표본이 다소 적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별 의미있는 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 상승률, 하락률을 기준으로 한 낙폭과대 종목 선정 전략은 큰 의미가 없었다. 즉, 단순히 많이 빠졌다거나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투자 아이디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Exhibit 8. KOSPI 200 유니버스 내에서 하락률 Top 10%와 Bottom 10%의 초과수익률

	2001-10-13	2001-10-20	2001-10-27	2002-06-08	2002-08-24	2002-08-31	2002-11-09	2003-02-08
Top 10%	-11.73	11.05	19.83	-12.18	-6.82	-2.96	-6.99	-3.38
Bot 10%	5.60	-3.30	-4.18	-8.21	-4.61	-5.19	-13.74	7.24
Top - Bot	-17.32	14.35	24.02	-3.97	-2.20	2.23	6.75	-10.63
	2003-04-12	2004-06-12	2007-09-15	2007-12-22	2008-08-16	2008-10-04	2008-11-08	2008-11-15
Top 10%	-6.66	0.61	-10.76	-10.99	-11.65	7.82	-10.09	-18.07
Bot 10%	8.57	3.74	-11.64	1.04	-5.56	0.46	-3.61	-8.21
Top - Bot	-15.23	-3.13	0.87	-12.03	-6.09	7.36	-6.47	-9.86
	2008-11-22	2008-11-29	2009-03-28	2009-04-04	2011-09-10	2011-09-17	평균	승률 (%)
Top 10%	-20.09	24.99	1.41	16.98	-5.46	-16.10	-3.24	31.82
Bot 10%	-15.03	16.80	0.88	9.68	3.20	-2.64	-1.31	45.45
Top - Bot	-5.06	8.19	0.53	7.30	-8.66	-13.46	-1.93	40.91

Source: Fnguide, Baro Research Center

외국인 비중이 올라가는 종목 또한 별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질문을 해 볼 수도 있다. “과거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힘들 듯 하고, 차라리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최근 4 주간, 외국인 비중의 증감율(%)를 구해보았다. 그리고 상위 20% 종목과 하위 20% 종목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조사결과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hibit 9 에 결과를 요약해 놓았다. 매수 후 1 주, 2 주, 3 주, 4 주가 지나도 결과는 똑같다.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수급 팩터가 그렇듯 아주 유의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hibit 9. KOSPI 200 유니버스 내에서 외인 비중 증가 Top 10% Vs Bottom 10%의 초과 수익률

	외인 비중 증가 종목 Top 10%				외인 비중 증가 종목 Bot 10%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2001-09-15	2.91%	5.25%	3.83%	2.25%	1.03%	3.68%	2.11%	4.70%
2001-09-22	2.29%	0.63%	-1.79%	0.11%	2.95%	1.39%	4.23%	6.73%
2001-09-29	-1.44%	-3.88%	-3.78%	-8.07%	-1.92%	1.41%	4.46%	2.78%
2002-05-11	-6.61%	-8.66%	-8.29%	-6.59%	-3.01%	0.22%	-1.28%	-3.45%
2002-07-27	0.91%	-1.19%	-1.52%	-1.40%	0.23%	1.32%	-1.34%	-2.94%
2002-08-03	-2.02%	-2.08%	-1.74%	-1.87%	1.17%	-1.49%	-3.10%	-2.12%
2002-10-12	-2.13%	-0.37%	0.49%	-1.63%	-2.50%	-3.55%	-2.39%	-7.28%
2003-01-11	-0.96%	0.20%	0.25%	3.19%	0.62%	-0.41%	0.46%	2.69%
2003-03-15	0.55%	1.55%	3.96%	6.37%	-0.48%	2.10%	2.43%	2.63%
2004-05-15	-5.43%	-6.24%	-3.29%	-0.04%	-6.57%	-7.90%	-2.62%	1.84%
2007-08-18	2.08%	4.94%	2.43%	2.59%	1.45%	-0.02%	-0.54%	0.20%
2007-11-24	2.00%	0.73%	4.40%	4.43%	-1.30%	-3.32%	-1.24%	-3.07%
2008-07-19	0.37%	-0.05%	0.01%	0.28%	-2.55%	-1.76%	-2.09%	-2.13%
2008-09-06	1.10%	1.05%	0.37%	1.22%	0.53%	-2.64%	-3.41%	-1.08%
2008-10-11	5.59%	-3.41%	-7.65%	3.56%	4.01%	1.64%	-5.88%	-0.13%
2008-10-18	-7.68%	-13.20%	-6.55%	-5.59%	-1.81%	-9.86%	-4.04%	-3.19%
2008-10-25	-10.40%	1.12%	2.01%	-3.03%	-8.40%	-0.22%	0.64%	1.00%
2008-11-01	9.38%	5.19%	1.44%	6.04%	7.72%	8.57%	8.19%	6.48%
2009-02-28	-0.74%	-2.19%	-1.29%	-3.21%	-1.55%	-2.01%	-1.37%	-2.37%
2009-03-07	-2.17%	-1.50%	-4.35%	-3.89%	-0.24%	0.39%	-0.49%	1.34%
2011-08-13	1.94%	-2.26%	-1.25%	-3.03%	1.72%	0.23%	-0.11%	0.11%
2011-08-20	-3.20%	-2.94%	-5.53%	-6.06%	-1.45%	-1.97%	-1.79%	-3.95%
승률	50.00%	40.91%	45.45%	45.45%	45.45%	45.45%	31.82%	50.00%
초과수익률	-0.62%	-1.24%	-1.27%	-0.65%	-0.47%	-0.65%	-0.42%	-0.06%

Source: Fnguide, Baro Research Center

교집합을 찾아보자 : 산업재 및 에너지, 고변동성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유의했던 전략들의 교집합을 찾아보자. 섹터 전략에서는 산업재 및 에너지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며 스타일 전략에서는 고변동성 종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종목들의 교집합을 찾아보자.

에너지 섹터 또는 산업재로 분류된 종목 중에서 BIG VOL 지수의 정의에 따라, 6 개월 일별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찾아보았다. 시가총액 5 천억 이상, 60 일 평균 거래대금 20 억원 이상 종목만을 유니버스로 하였으며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관리 및 거래정지, 투자주의 및 경고 종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2019 년 적자가 예상되는 종목 또한 제외하였다.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업종분류는 Fnguide Industry 분류를 따랐다. 정렬은 6 개월 변동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산업재 및 에너지 섹터의 유니버스가 한정적이다 보니, 종목이 다소 대북이슈 등에 편중되어있는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

Exhibit 10. 산업재 및 에너지 섹터 중 변동성이 높은 종목 List 20 (2018 년 10 월 26 일 기준)

Symbol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억원)	60D 거래대금 (억원)	6개월 변동성 (%)	PER (배) FY18	FY19
1 A064350	현대로템	산업재	19,125	943	7.09%	72.72	25.53
2 A017800	현대엘리베이	산업재	22,378	919	6.19%	97.30	23.56
3 A000720	현대건설	산업재	52,226	736	5.23%	10.08	8.60
4 A267260	현대일렉트릭	산업재	6,185	30	3.97%	50.08	11.18
5 A047810	한국항공우주	산업재	28,950	442	3.85%	24.22	19.04
6 A001820	삼화콘덴서	산업재	6,071	404	3.80%	9.85	7.95
7 A004800	효성	산업재	5,828	74	3.61%	1.30	1.06
8 A009410	태영건설	산업재	7,510	44	3.52%	2.71	2.24
9 A267270	현대건설기계	산업재	9,373	85	3.37%	7.87	6.94
10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재	15,326	96	3.34%	40.66	23.76
11 A052690	한전기술	에너지	7,281	20	3.30%	69.73	48.82
12 A112610	씨에스윈드	에너지	5,082	21	3.21%	13.20	11.37
13 A079550	LIG넥스원	산업재	6,765	45	3.12%	32.10	13.00
14 A047040	대우건설	산업재	19,139	74	2.99%	4.86	4.61
15 A010120	LS산전	산업재	17,880	71	2.97%	11.40	10.17
16 A010060	OCI	에너지	19,604	250	2.97%	11.41	9.08
17 A180640	한진칼	산업재	11,272	99	2.87%	18.77	7.09
18 A047050	포스코대우	산업재	22,146	69	2.74%	9.40	6.80
19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재	17,090	168	2.69%	5.00	4.41
20 A272450	진에어	산업재	5,325	77	2.65%	6.26	5.05

Source: Fnguide, Baro Research Center

주) 본 종목 리스트는 섹터 애널리스트와 관계 없는 단순 정량적 스크리닝임.

섹터에 구애받지 않겠다면

산업재 및 에너지 섹터라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 관련 종목 또한 제거하고 싶다면 리스트는 아래와 같이 뽑을 수 있다. 정렬 순서는 역시 6개월 변동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유니버스 또한 앞의 조건을 따랐다. 트렌디한 특성의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날카로운 하락장에서의 반등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해 불만한 주식으로 판단한다.

Exhibit 11. 단순 고변동성 종목 List 25 (2018년 10월 26일 기준)

Symbol	Name	업종분류 (Fnguide 기준)	시가총액 (억원)	60D 거래대금 (억원)	6개월 변동성 (%)	PER (x)	
						FY18	FY19
1 A002210	동성제약	의료	5,137	939	6.4%	205.48	151.09
2 A031390	녹십자셀	의료	5,883	476	5.2%	154.82	133.71
3 A092040	아미코젠	의료	6,113	78	4.1%	39.67	26.04
4 A267260	현대일렉트릭	산업재	6,185	30	4.0%	50.08	11.18
5 A001820	삼화콘덴서	산업재	6,071	404	3.8%	9.85	7.95
6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널	경기소비재	10,746	128	3.7%	21.18	14.29
7 A018250	애경산업	필수소비재	10,199	134	3.7%	14.04	10.95
8 A004800	효성	산업재	5,828	74	3.6%	1.30	1.06
9 A035900	JYP Ent.	경기소비재	9,483	263	3.6%	40.60	24.96
10 A003670	포스코켐텍	소재	41,349	432	3.5%	28.77	24.50
11 A253450	스튜디오드래곤	경기소비재	26,019	192	3.5%	50.40	32.60
12 A091990	셀트리온헬스케어	의료	96,398	843	3.4%	46.36	38.73
13 A000250	삼천당제약	의료	7,627	149	3.4%	45.58	29.22
14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재	15,326	96	3.3%	40.66	23.76
15 A083790	크리스탈	의료	7,885	76	3.3%	876.08	342.81
16 A004170	신세계	경기소비재	25,056	289	3.3%	9.28	8.33
17 A105630	한세실업	경기소비재	7,360	43	3.3%	29.01	12.97
18 A052690	한전기술	에너지	7,281	20	3.3%	69.73	48.82
19 A241590	화승엔터프라이즈	경기소비재	7,809	38	3.3%	17.74	12.57
20 A012510	더존비즈온	IT	13,531	50	3.3%	31.20	25.54
21 A112610	씨에스윈드	에너지	5,082	21	3.2%	13.20	11.37
22 A1228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경기소비재	6,656	142	3.2%	75.45	31.38
23 A081660	휠라코리아	경기소비재	26,891	200	3.2%	16.82	16.16
24 A008770	호텔신라	경기소비재	28,416	518	3.2%	17.48	13.64
25 A020150	일진머티리얼즈	IT	20,865	332	3.2%	40.96	27.23

Source: Fnguide, Baro Research Center

주) 본 종목 리스트는 섹터 애널리스트와 관계 없는 단순 정량적 스크리닝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